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현황

1. 섬유산업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제2위 원면 수출국이며, 2001~02년 원면 생산량은 106만 톤으로 세계 5위 기록
 - 섬유산업은 재정수입의 25~28% 차지
- 100여개 섬유업체가 활동
 - 우즈베키스탄 경공업협회(Uzbekengilsanoat) 산하 102개 섬유업체가 원사 13만 톤, fabrics 5억 미터, 카펫 250만 m², 니트웨어 6,210만 점 등의 생산능력을 보유
 -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민영화 및 민간투자 유치 가속화 노력

2. 1998년 이후 투자현황

- 1995~2001년 중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5.6억 달러이며, 이중 외국인직접투자는 3.1억 달러에 달함
- Uzbekengilsanoat는 1999년 섬유부문 외국인투자유치 5개년계획을 추진하며, 2005년까지 원사가공 부문에 13억 달러 투자 계획
 - 20개 기업의 시설 현대화, 의류생산능력 3배 증대, 국내 원사가공

율 50% 상향, 30,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 Uzbekengilsanoat는 2003년에 연간 기준으로 원사가공, cotton yarn 및 fabrics 제조 등 총 11개 프로젝트에 154백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음
 - 2003년 중 섬유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여신은 9,580만 달러임(5,850만 달러는 정부보증임)
- 1997~2002년 기간 중에는 11개 대형 원면가공업체가 설립되었고, 총투자금액은 4억 2,060만 달러 규모임
 - 토이테파, 타쉬켄트 갑을 현지법인(Kabool-Textile Co.), JV Kosonsoy Tekment, JV Papfen, JSC Namangantextile, JSC Kashtex, JSC Gurlen, JSC Antex, JV Asnamtextile, JV Karakultex, JV Medatex 등이 설립됨

3. 최근 투자 현황

- 최근에는 투자방향이 기존의 yarn의 품질 향상에서 weaving, finishing, 완제품 제조 등으로 발전
 - 우즈베키스탄은 자체 생산한 100만 톤 fiber에서 20만 톤의 yarn을 생산하였으나, 해외차입 상황을 위한 경화 획득을 위해 이 중 품질이 양호한 50~60% 부분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내수용인 저품질의 yarn으로는 양질의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종합공정을 갖춘 합장공장 설립 등 관련 기계설비 수요 증가
 - 기 가동중인 종합공정을 갖춘 합작공장들 위주로 dyeing,

finishing, knitting, weaving 등 관련 설비수요가 많아질 전망

o denim, terry 제품 생산을 위한 현대설비와 sewing 기계류의 판매 전망도 밝음

o dyes, accessories, 포장재 등도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07년 중 국내생산 cotton의 50%를 가공할 계획

4. 섬유기계시장 규모

□ 섬유분야 노후화된 설비 및 부품 현대화는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연간 약 2억 달러 규모의 시장 규모 형성

□ 과거에는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간 3,000~5,000톤 생산능력이 요구되는 500만~700만 달러 규모의 중소형 규모로 바뀌는 양상

□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발전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 잠재력이 높고, 관련 섬유기계 수입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5. 섬유기계산업 현황

□ 구소연방 시절 수도 타쉬켄트에 Tashkent Textile Machinery Plant가 설립되어 섬유기계산업을 주도하였으나, 독립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 약화, 수요 격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기계생산 보다는 일반 소비재 생산으로 바뀜

- Tashkent Textile Machinery Plant가 생산한 설비로 국내 섬유공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대부분 섬유기계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표> 참조)
 - 우즈벡 기계조립협회(Machinery Building Association)가 이 공장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
- dyeing, finishing equipment 등에 대한 추가 수입수요가 전망되고, 미국 섬유업체들도 우즈베키스탄 섬유기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 섬유기계 수입 환경

- 섬유기계 수입 및 기술 도입에 대해 수입관세 등 제반 세금을 면제하는 등 전반적인 수입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국내 숭화의 완전태환이 보장되지 않아 수입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기계 판매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잠재 구매자들이 생산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번 거래 성사 후에도 거래관계 유지 등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섬유기계 시장에서서의 일정 지위확보는 거래선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
- 기계 제조업체들은 구입신용 공여나 판매대금 회수를 위한 특별한 대금결제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음

< 표 >

Uzbek Textile Association의 섬유기계 수입 현황

(1995년 이후)

(단위 : 해당통화)

연도	수입자	수입설비 부문	프로젝트 금액	비고
1995	Uzbek Turkish JV "Asnamtextil"	spinning	DM40.4백만	KFW DM34.3백만 지원
	Supertextile		U\$7.1백만	
1996	Kabul Uzbek Co	cotton yarn, fabric 제조	U\$60.0백만	KFW DM2.8백만 지원
	Notukimachi	인조모피	DM3.3백만	
1997	Namangantextil	교체	DM50백만	KFW 지원
1998	Papfen JV	cotton yarn 생산	DM50백만	
	Kasansay Tekmen JV	wool 가공	U\$60백만	
	Anted JV	cotton 가공	DM3백만	
1999	Kabul Uzbek Co.		U\$76.8백만	
2000	Karakultex JV		DM14백만	
2001	Chinoz Tukimachi Ltd	yarn 생산	U\$63백만	
	Kabul Ferghana Ltd	"	U\$118백만	
	Ok Saroy Tukimachi Ltd JV	"	U\$66.7백만	
	Khiva Carpet JV	wool 카페트 제조	DM56.3백만	

우즈베키스탄 주재원 제공
 책임연구원 차 실(☎02-3779-6678)
 E-mail : skysilh@koreaexim.go.kr